

전북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전북자치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심 미래비전·단계별 로드맵 마련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북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0일 '전북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산업 육성 방향과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 푸드테크 육성 정책과 연계해 전북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전북 지역의 산업 여건과 관련 인프라, 기업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연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푸드테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0일 '전북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산업 육성 방향과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

크 연구지원센터 발굴 등 실질적인 지원 기반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 국내외 푸드테크 산업의 기술 생

태계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북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서 산업 성장 기반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자치도 관계 공무원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주)엔터리찌치 연구책임자가 과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푸드테크 산업 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전북형 육성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전북 푸드테크 산업의 방향성과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현장과 정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수목원, 우리나라 꽃문화 조명

26일까지 전시회 개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전주수목원에서 우리 전통 꽃문화를 되새기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북본부는 전주수목원 실내에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꽃문화 이야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일제강점기 민족사학자 호안 문일평 선생이 1934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산문집 '화하만필(花下漫筆)'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화하만필'은 '꽃 아래에서 붓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뜻으로, 꽃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수필 형식으로 풀어낸 글이다.

전시에서는 책에 등장하는 매화와 배나무, 진달래 등 꽃식물 44종에 대한 설명문과 사진 자료를 함께 선보이며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 꽃문화와 시대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주수목원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력해 2023년부터 전통 화원을 주제로 한 '고전 속의 화원' 시리즈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조선 후기 '꽃백과사전', 2024년 조선 전기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2025년 고려 시대 '동국 이상국의 화원'에 이어 올해는 일제강점기 꽃문화를 주제로 네 번째 전시를 선보이게 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순창 참두릅 관촉 행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제철을 맞은 순창 참두릅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관촉 행사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16일부터 22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전주 유통센터와 수도권 대형 유통센터에서 순창 참두릅 홍보 판매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품질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한 전북 참두릅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릅은 대표적인 봄나물 가운데 하나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재료로 평가받는다.

특히 특유의 씹쓸한 맛을 내는 사포닌을 비롯해 이연과 셀레늄이 풍부해 봄철 떨어지기 쉬운 체력 보충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대상 신종 랜섬웨어 공격 공동 대응

전북중기청·중기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주의 당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신종 랜섬웨어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 'Midnight(미드나이트)'와 '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권고문을 배포하고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증가하며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격은 IT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

해 고객사로 확산시키는 공급망 공격 방식이 특징이다.

경찰청과 KISA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견적 문의, 입사 지원, 컨설팅 요청 등으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을 IT 유지 보수 업체에 발송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뒤, 원격제어 악성코드를 설치해 계정 정보와 내부 자료를 탈취한다.

이후 탈취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를 사칭한 이메일을 고객사에 재차 발송하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랜섬웨어는 단순한 파일

암호화를 넘어 사전에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형' 공격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 기업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피해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유통과 에너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 업종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기부와 경찰청, KISA는 공격 기법과 악성 이메일 유형, 예방 수칙 등을 담은 보안권고문을 관계기관과 기업,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의시에 배포했다.

보안 당국은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첨부파일 실행 금지, VPN 및 원격접속 외부 접

근 통제, 다중인증 적용, 안전한 백업 체계 구축 등 기본 보안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공격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과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중기청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안권고문을 신속히 전파하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보안 교육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제조기업과 스마트제조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사례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Midnight'와 'Endpoint' 랜섬웨어 관련 공격을 수사 중이며, 추가 위협 정보를 관계기관과 기업에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SNS 코믹 콘텐츠로 브랜드 이미지 혁신 나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코믹 콘텐츠를 선보이며 기존 금융기관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브랜드 전환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행은 최근 짧은 상황극과 유머 요소를 가미한 영상 콘텐츠를 잇따라 공개하며 고객과의 소통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금융권의 소통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는 가운데,



전북은행 역시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브랜드 전략 변화와 지역사회와

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SNS 콘텐츠는 상품 소개나 서비스 안내 중심의 정보 전달형이 주를 이뤘지만, 전북은행은 최근 일상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코믹 영상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영화나 광고를 패러디한 캐릭터 중심 콘텐츠를 통해 금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노출하는 방식을 택해 소비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홍보를 넘어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보다 일상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변화는 재미와 공감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콘텐츠 소비 흐름과도 맞물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평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여름배추 안정 생산 위해 씨스트선충 방제 총력

농촌진흥청이 여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씨스트선충 방제 강화에 나섰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의 고랭지배추 재배지를 방문해 씨스트선충 공격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실재를 살폈다.

씨스트선충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배추와 무 등 배추과 작물의 뿌리에 기생하며 생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토양 병해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토양 소독과 함께 백겨자, 기름무 등 꽃거름 작물 재배 후 토양 갈아엎기 등을 통해 선충 밀도를 낮추는 방제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까지 전문기관과 협력해 강원 고랭지 주요 재배지인 태백, 삼척, 정선, 영월, 강릉, 평창 지역에서 토양 시료를 채



취해 선충 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충 발생 밀도에 따라 저밀도와 고밀도 재배지로 구분하고 각각 맞춤형 방제 체계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검역 지역은 공통적으로 배추 모종 정식 전 훈증제와 비훈증제를 활용한 토양 소독을 실시하며, 고밀도 재배지는 생육기 동안 비훈증제를 추가 살포해 토양 내 선충 밀도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또 방제 대상 농가가 적기에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훈증제 등 방제 물품도 사전에 배부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